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김 윤 희**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방 명 애***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권 보 미****

줄포중학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각장애 학교 2개교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청각장애 학교 각각 1개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중등학생 115명과 전라북도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중등학생 43명, 총 158명을 편의군집표집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각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은 자아존중과 친화력이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도전적 과제선호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제한점에 기초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속 연구와 교육현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각장애 중등학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사용한 것임.

** 제 1저자

*** 교신저자 (kdj-0729@hanmail.net)

**** 공동저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 장애인 통계에 의하면 2014년 12월말 기준 청각장애인의 수는 남성 138,356명, 여성 114,423명, 총 252,77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1%를 차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청각장애 학생의 수는 3,401명이며, 초등학생은 321명, 중학생은 287명, 고등학생은 387명으로 전체 장애학생의 3.9%에 해당한다(교육부, 2016). 현행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각 장애학생의 공통 교육과정에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2015년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의 개별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2015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청각장애 학생의 국어교과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청각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사소통 양식을 활용하여 국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도 의사소통 양식을 고려하여 청각장애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 특수교육의 목표가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은 청각장애 학생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밑바탕이 되는 요소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성과 중 하나이다. 청각장애 학생에게 의사소통을 고려하여 교육을 제공할 때 성공적인 독립된 삶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 2012)에서는 삶의 질을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와 가치 체계 및 목표, 기대, 표준 및 우려와 관련하여 자신의 삶의 위치에 대한 인식 이라고 정의하였다. 홍성례(2011)는 삶의 질을 인간의 삶이 좋은 상태 혹은 바람직한 상태라고 하였으며, 이는 다면적·포괄적인 개념으로 사람의 물질적·신체적 수준 내지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혜정(2016)은 삶의 질을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요인과 관련된 것이라 하였으며, 삶의 양적인 측면만이 아닌 질적인 측면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개념을 갖고 있고 행복감, 삶의 만족이란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삶의 질은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고 판단하는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삶의 질을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나 최근에는 건강관련 삶의 질(유정완 외, 2017; 전수영, 송영숙, 2017), 주관적 삶의 질(김영신, 2017; 박애란, 정경숙, 2017)등 삶의 질의 다양한 차원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삶의 질을 측정하는 영역은 달라지며, 청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으로 인해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수화·구화·필담 등 다른 의사소통 양식을 사용하므로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삶의 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각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여부는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김태강, 정은희, 2014a). Gerich와 Gellinger(2012)에 따르면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줄 때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할수록 청각장애 학생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Kushalnagar et al., 2011). 즉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해 최혜윤(2011)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개인의 의사소통 행동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의미 있는 일상생활의 범위라고 하였으며, 김태강(2014)은 의사소통 상황의 참여 및 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의사소통 삶의 질을 정의하였다.

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각장애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청력손실이 있는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Borton, Mauze, & Judith, 2010), 청각장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Devine, Piatt, & Dawson, 2015), 특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Arsic, & Djordjevic, 2017)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년기 청각장애를 위한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신은영, 2013)와 청각장애 장노년기 삶의 질 척도에 관한 연구(박성일, 김진숙, 2017)가 있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미숙, 조수진, 2011)가 있다.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태강, 정은희, 2014b),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일반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비교(정소영, 임경원, 김삼섭, 2013)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삶의 질은 가변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면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등의 개인 내적 변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발달과 성장에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며,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Berzonsky et al., 2011; Changxiu, & Xiaojun, 2014). 또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적 욕구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으며, 특히 발달의 연속성과 동일성에 기초하여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자기다움의 기초가 된다(박혜림 외, 2015). Kunnen(2014)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5년간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 학생의 자아정체감은 건청 학생보다 빨리 정립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이전부터 청각장애 학생의

올바른 자아정체감 확립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습과 성취, 노력과 과제 지속력, 직업선택과 자기결정력 등 성취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주요 내적 요인과 관련이 있다(김은정 외, 2015). 또한 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성 발달, 읽기, 쓰기 등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nastasiou, & Michail, 2013). Krüninger-Jungaber와 Grevenstein(2013)이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각장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건강과 치료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Shogren, Kennedy, Dowsett, 그리고 Little(2014)은 청각장애 대학생의 진로 성숙과 진로탐색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요인의 궤적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발달하면서 진로에 대한 인식과 진로에 대한 적극성, 자기주도성이 발달하기 때문이다. Costello와 Stone(2012)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형성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성인기 직업선택이나 자기결정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청각장애 학생이 성인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사회에 나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질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특히 청각장애와 관련한 삶의 질은 의사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청각장애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둘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청각장애 학교 2개교와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에 소재한 청각장애 학교 각각 1개교, 전라북도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중등학생을 편의군집표집하였다. 대상학교의 학생 총 2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72부(86.0%)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하고 158부(79.0%)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58)

		성 별		학교 유형		의사소통 방법		
		남	여	특수 학교	일반 학교	수화	구화	동시 사용
학교 급	중학교	41	21	69	32	28	21	52
	고등학교	60	36	46	11	18	15	24
계		101	57	115	43	46	36	76

2. 측정 도구

1)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우와 최성규(2015)가 청각장애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장애수용, 농정체감, 농문화인식, 자아존중, 역할인지, 친화력 등 6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우와 최성규(2015)의 하위요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5~.91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3이다. 본 연구의 하위변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자아정체감 검사도구의 하위변인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총점범위	Cronbach α
장애수용	6	1-6	6-30	.66
농정체감	7	7-13	7-35	.81
농문화인식	6	14-19	6-30	.80
자아존중	6	20-25	6-30	.90
역할인지	6	26-31	6-30	.84
친화력	6	32-37	6-30	.80
전체	37	1-37	37-185	.93

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정우와 최성규(2015)가 청각장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 과제난이도 선호로 3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도전적 과제 선호’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이 척도는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정우와 최성규(2015)의 하위변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3~.83이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0이다. 본 연구의 하위변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의 하위변인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총점범위	Cronbach α
자신감	6	1-6	6-30	.81
자기조절	6	7-12	6-30	.72
도전적 과제선호	6	13-18	6-30	.82
전체	18	1-18	18-90	.90

3)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본 연구에서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태강과정은희(2014a)가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사소통 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학교 및 일상생활 참여, 의사소통 태도 등 4개의 하위변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검사 문항의 총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태강과 정은희(2014a)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79~.89이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95이다. 본 연구의 하위변인별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하위변인 및 신뢰도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총점 범위	Cronbach α
의사소통 효능감	7	1-7	7-35	.86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8	8-15	8-40	.89
학교 및 일상생활 참여	5	16-20	5-25	.79
의사소통 태도	5	21-25	5-25	.85
전체	25	1-25	25-125	.95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네 단계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자아정체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척도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한 후 특수교육과 교수 1인과 특수교육학과 박사과정 2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두 번째 단계는 각 학교에 연락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 의사가 있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편의군집표집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 학교인 5개 특수학교와 18개의 특수학급에 설문지 2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172부(86.0%)를 회수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14부의 자료를 제외한 158부(79.0%)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4. 자료 처리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for windows 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성별, 학교 급, 학교 유형, 의사소통 방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에 의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 등의 변인 간 적률상관계수에 의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하여 학교 유형과 자아정체감 척도의 총점과 자기효능감 척도의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구분	B	표준오차 오류	β	t
학교 유형	4.896	1.958	.122	2.501*
자아정체감	.360	.048	.475	7.513***
자기효능감	.516	.088	.365	5.900***
R ²	.628			
F	93.025***			

* $p < .05$, *** $p < .001$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모델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F=93.025$), R^2 이 .628이므로 회귀모델에 포함시킨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변량의 62.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은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일반학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2.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하위변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기 위하여 학교 유형과 자아정체감 하위변인인 장애수용, 농정체감, 농문화인식, 자아존중, 역할인지, 친화력의 6개 변인과 자기효능감 하위변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도전적 과제선호 3개 변인, 총 10개 변인의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의 총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

하위변인		B	표준오차	β	t
학교 유형		.129	.077	.081	1.682
자아정체감	장애수용	.027	.057	.026	.465
	농정체감	.096	.057	.112	1.619
	농문화인식	-.055	.060	-.071	-.959
	자아존중	.120	.058	.154	2.052**
	역할인지	-.010	.075	-.012	-.137
	친화력	.393	.065	.407	6.006***
자기 효능감	자신감	.113	.067	.132	1.676
	자기조절	.073	.077	.074	.948
	도전적 과제선호	.182	.057	.214	3.197**
R^2		.680			
F		37.543***			

** $p < .01$, *** $p < .001$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인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에 대한 회귀모델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F=37.543$), R^2 이 .680이므로 회귀모델에 포함시킨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변량의 68.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도전적 과제선호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친화력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친화력이 높을수록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할수록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장애수용, 농청체감, 농문화 인식, 역할인지와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 자기조절은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 유형,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보다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한 고희정(2016)의 연구와 일반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특수학교 출신의 학생들 보다 학업 적응력과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한 김경화(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혜성(2014)은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비장애 학생과 접촉이 많고, 지역사회 주민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게 된다. 통합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 조기에 수화, 구화, 종합적 의사소통 방법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접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들이 통합 환경에 배치된 학생들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한 이영건과 정은희(2011)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반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의사소통 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교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첫 번째 연구문제의 자료 분석에서는 학교 유형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나 두 번째 연구문제의 자료 분석에서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포함시켰을 경우 학교 유형이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교 유형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다는 박미려와 양은주(2017)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문은식(2015)은 자아정체감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김신아와 한윤선(2015)은 잘 형성된 자아정체감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혜림 외(2015)는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적 위기감에 직면하게 되고 행복감과 안녕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에는 가족뿐 아니라 또래와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정체감이 발달된다. 특히 청각장애 중등학생에게 올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시켜 의사소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장애 또래 친구들에게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수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합학급 내에서 수화와 구화의 간단한 용어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수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정여주와 홍성례(2012)의 연구와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지은, 김은영 그리고 왁홀스(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이 인지하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정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삶의 질과 관련 있다(Crann et al., 2013). 김현리, 정미숙 그리고 주경옥(2017)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학령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는데 청각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긍정적,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 한신애와 문수백(2010)은 교사의 지지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에게 장애로 인해 갖게 되는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은 발전시켜줄 수 있는 교사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관리 프로그램(이혜원, 2016)과 흥미와 관심 있는 분야의 동아리 참여 활동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미연, 김정해, 2013). 표현활동은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으며(유영란, 최현혁, 2017), 집단미술치료는 중등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켰다(김주희, 홍선미, 2017). 이처럼 장애정도와 연령에 맞게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은 자아존중과 친화력이며,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은 도전적 과제선호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허미정, 노미화 그리고 최연실(2016)의 연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윤희정과 신자은(201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추진력이 되며,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Lee, Cheng, & Lin, 2014).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일교, 2017). Warner 외(2015)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개인 삶의 질에 바탕이 된다. 석말숙과 구용근(2015)은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해줄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가족중재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성봉 외, 2014).

친화력은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체장애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에 친구, 친척 및 대인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김승호, 박재국 그리고 김은라(2016)의 연구와 청각장애 학생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와 친구관계라고 밝힌 이미숙과 조수진(2011)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정소영, 이경원 그리고 김삼섭(2013)의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인은 제한된 접근성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므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최혜윤 외(201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친구관계, 가족관계, 의사소통 능력은 청소년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타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도전적 과제 선호는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과제의 난이도 지각이 높을 때 심층학습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학습효과를 높인다(이성혜, 최경애, 2016).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이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학습을 경험하면서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사고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De Pater et al., 2009). 또한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학생들은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학생들 보다 높은 학업적 효능감을 갖게 되며,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해진다(안도희, 윤지민 2010). 이는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과제에 대해 도전하려는 경향이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성취동기가 높아진다.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화력이 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할수록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이 높다. 학교에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고, 수업시간에 협동놀이, 요리 실습과 같은 모둠활동을 통해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김유희, 방명애, 2015). 가정 내에서 부모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친화력을 높일 수 있다. 학습과제의 난이도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자신의 학습수준 보다 높은 과제에 도전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지역적으로도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연구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둘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표본 크기가 불균형하므로 본 연구 결과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전체에 일반화 할 수 없다. 셋째, 청각장애 학생의 특성인 제한된 어휘능력으로 인해 설문지의 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응답이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답안을 과장하였거나 축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과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설문지뿐 아니라 면접법, 사례연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건청 학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과 장애이해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 예절과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교수하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각장애 중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청각장애 중등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혜정 (2016).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연구 접근 관점 고찰.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307-324.
- 교육부 (2016). **2016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6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 교육부 (201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교시 알림**.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 김경화 (2015). 4년제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청각장애 신입생들의 대 학생활 적응에 대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3), 187-202.
- 김미연, 김정해 (2013). 중학생의 동아리학급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K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2(1), 139-157.
- 김승호, 박재국, 김은라 (2016).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주관적 삶의 질. **장애와 고용**, 26(4), 173-195.
- 김신아, 한운선 (2015).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중단연구: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75-89.
- 김영신 (2017). 음악치료사가 지각한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29-52.
- 김유희, 방명애 (2015). 학급차원의 사회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 비장애학생의 장애수용 태도와 학교폭력인식 및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4), 201-228.
- 김은정, 박혜림, 구명성, 최성규 (2015).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자기 효능감의 구조관계 분석. 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 237-258). 대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문제연구소.
- 김주희, 홍선미 (201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7(1), 35-55.
- 김태강 (2014).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강, 정은희 (2014a).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9(1), 49-70.
- 김태강, 정은희 (2014b).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 및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 간의 의사소통 관련 삶의 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3), 93-110.
- 김현리, 정미숙, 주경옥 (2017). 농촌 지역 재가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 분석. **재활복지**, 21(1), 47-70.
- 문은식 (2015). 중학생의 또래애착,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22(1), 21-35.
- 박미려, 양은주 (2017). 부모방임, 또래애착이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을 매개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1), 263-284.
- 박성일, 김진숙 (2017). 청각장애 장노년기의 삶의 질 척도를 위한 문항 개발. **청능재활**, 13(1), 28-40.

- 박애란, 정경숙 (2017). 일 지역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가족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12-221.
- 박혜립, 김은정, 구명성, 최성규 (2015). 청각장애대학생이 인지하는 학령기 교우관계와 정체감의 구조관계 분석. 특수교육문제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pp. 271-293). 대구: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문제연구소.
- 석말숙, 구용근 (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17(1), 55-74.
- 송진영 (2016). 산업재해요양 이후 원직장복귀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6(3), 65-94.
- 신은영 (2013). 노년기 청각장애를 위한 삶의 질 지수의 표준화. **청능재활**, 9(2), 165-174.
- 안도희, 윤지민 (2010). 청소년의 과제 선호 성향 예측 요인 탐색. **교육학 연구**, 48(1), 1-22.
- 오연, 방명애 (2013).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일반학급 학생의 학교폭력 경향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비교.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21-38.
- 유영란, 최현혁 (2017). 표현활동 프로그램참여 전/후 따른 초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교생활 만족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 707-721.
- 유정완, 김규태, 김아람, 최승욱 (2017). 성인 뇌성마비의 관절가동범위가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2), 1189-1198.
- 윤희정, 신자은 (2015).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4), 432-461.
- 이미숙, 조수진 (2011). 청각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2), 175-187.
- 이성봉, 방명애, 김은경, 박지연 (2014). **정서 및 행동장애 (2판)**. 서울: 학지사.
- 이성혜, 최경애 (2016). 온라인 수학 과학 영재교육에서 중학생의 학습과제에 대한 지각과 도전감, 심층학습 및 성취도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189-212.
- 이영진, 정은희 (2011). 청각장애학생의 교육 배치 유형별, 학교 급별 학교생활만족도 비교 연구.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2(1), 15-30.
- 이정우, 최성규 (2015). 청각장애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의사소통양식 간의 관계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9(4), 1-26.
- 이지은, 김은영, 왁홀스 (2016).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23(10), 29-47.
- 이혜원 (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자기관리가 자기효능감과 무용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5(5), 921-934.
- 장혜성 (2014). 미국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삶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13(3), 273-299.
- 전수영, 송영숙 (2017). 사회경제적 수준별 초기 청소년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0(1), 81-91.
- 정소영, 임경원, 김삼섭 (2013).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비교. **재활복지**, 17(2), 279-297.

- 정여주, 홍성례 (201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 관계 연구-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239-257.
- 정일교 (2017).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8(1), 369-406.
- 최혜윤, 김용욱, 나동욱, 김향희 (2011). 'ASHA 의사소통 삶의 질 척도'의 한국어판 번안: 청소년용.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6, 388-39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5). 2015 장애인 통계. 조사통계 제2015-04호.
- 한신애, 문수백 (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57-476.
-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29-49.
- 홍성례 (2011). 청년기 남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71-87.
- Arsic, R. B., & Djordjevic, S. V. (2017). An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attending special schools in the servian education syste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s*, 18(1), 26-41.
- Borton, S. A., Mauze, E., & Judith, E. C. (2010).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unilateral hearing loss: A pilot study. *Journal of Audiology*, 19(1), 61-72.
- Brzonsky, M. D., Ciecuch, J., Duriez, B., & Soenens, B. (2011). The how and what of identity formation: Associations between identity styles and value orient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2), 295-299.
- Cramm, J. M., Strating, M. M., Roebroek, M. E., & Nieboer, A. P. (2013). The importance of general self-efficacy for the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chronic condit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13(1), 551-561.
- Damjana, K. (2015). Self-esteem of deaf and hard of hearing compared with hearing adolescents in slovenia; the context of social and communication factor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16, 30-51.
- De Pater, I. E., Van Vianen, A. E. M., Fischer, A. H., & Van Ginkel, W. P. (2009). Challenging experiences: Gender differences in task choic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4(1), 4-28.
- Devine, M. A., Piatt, J., & Dawson, S. (2015). The role of a disability-specific camp in promoting social acceptance and quality of life for youth with hearing impairments. *Therapeutic Recreation Journal*, 49(4), 293-309.
- Gerich, J., & Fellingner, J. (2012).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the quality of life in an elder and middle-aged deaf community sampl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7(1), 102-113.
- Kunnen, E. S. (2014). Identity development in deaf adolescents. *The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9(4), 1081-4195.

- Kushalnagar, P., Topolski, T. D., Schick, B., Edwards, T. C., & Skalicky, A. M., (2011). Mode of communication, perceived level of understanding, and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youth who are deaf or hard of hearing.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16*(4), 512.
- Lee, Y., Cheng, C., & Lin, S. S. (2014).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self-control and self-esteem and the grouping effect on adolescent quality of life across two consecutive years. *Social Indicator Research, 117*(2), 523-539.
- Shogren, K. A., Kennedy, W., Dowsett, C., & Little, T. (2014). Autonomy,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self-realization: Exploring data on self-determination from NLTS2. *Exceptional Children, 80*(2), 221-236.
- Warner, D., Loy, B., Evans, C., Wetsel, A., & Tobey, E. (2015).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hearing loss. *Trends in Hearing* [internet] . 2015 [cited 2015 July 8] ;19: 1-12. Available from: <http://tia.sagepub.com.nukweb.nuk.uni-lj.si/content/19/2331216515572615.full>.

Analyses of Variables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Kim, Yun Hee

Woosuk University

Bang, Myong Ye

Woosuk University

Kwon, Bo Mi

Joolpo Middle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variables influencing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One-hundred fifty eight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selected from five special schools and eighteen special education classe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sent by mail. The data were analyzed by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chool type, self-identity, and self-efficacy had impact on the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Second, the sub-scales of the self-identity scale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were self-esteem and affinity. The sub-scale of the self-efficacy scale influencing the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was preference of difficult tasks. Limitations of the study,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sett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communication-related quality of life, self-identity, self-efficacy

논문 접수: 2017. 06. 12 심사 시작: 2017. 06. 12 게재 확정: 2017. 07. 18